



다큐에서 애니까지

새해 여는 광주극장 스크린

광주극장 새해 개봉작 눈길

17일 '고백하지마' 관객과의 대화
연출가 류현경·배우 염혜란 참석

22일 '1026: 새로운 ...' 시사회
'시라트' '광장' '리틀 아멜리' 등



류현경 '고백하지마'



올리베르 라세 '시라트'



▲메릴리스 발라데, 리안 조 한 '리틀 아멜리'

▶김보솔 '광장'

영화 '하나, 둘, 셋, 러브'의 촬영이 끝나고 뒤풀이 다음 날, 주연배우 충길이 동료 배우 현경에게 고백했다. 현경은 그런 충길의 고백이 불편하기만 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어색해지고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진다. 3개월 뒤 현경과 충길은 서로 다른 이유로 부산을 찾았다가 우연히 다시 마주친다. 충길 앞에는 또 한 번 고백의 기회가 생겼다.

영화 '고백하지마'의 배우이자 연출가 류현경과 염혜란 배우가 함께 광주를 찾아 관객과 만난다.

광주극장에서 오는 17일 오후 2시 영화 '고백하지마'의 GV(관객과의 대화)가 열린다. 배우 류현경이 프로젝트 매니저로 참여해 연출과 출연은 물론 편집, 배급,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직접 맡아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영화는 촬영 현장에서 배우 김충길이 류현경에게 고백한 실제 사건에서 출발한다. 류현경의 '웃참' 등 어디부터 연기이고 어디까지 현실인지 가능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이어져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염혜란 배우는 GV의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해 연기자로서의 경험과 연기와 현실의 경계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영화 '어쩔 수가 없다', 드라마 '꼭꼭 숨었다' 등에서 '압도적인 연기력'이라는 극찬을 받았던 배우인 만큼 영화와 연기, 배우를 사랑하는 시네필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새해를 맞은 광주극장에는 역사 다큐멘터리부터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스크린에 오른다.

오는 22일 오후 5시에는 영화 '1026: 새로운 세상을 위한'의 광주 특별시사회가 열린다. 작품은 10·26의 배경과 전후 맥락을 짚는 하이브리드 역사 다큐멘터리다. 1946년부터 1980년까지 김재규·박정희·장준하 세 인물의 첫 연인과 마지막 운명을 역사적 사실과 함께 교차해 따라가며 새로운 시선으로

10·26을 해석한다. 상영 후에는 최위안 감독과 출연진이 함께하는 GV도 마련된다. 관람료 무료.

또 하나의 화제작은 오는 21일 개봉하는 영화 '시라트'다. 제78회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과 사운드트랙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제목 '시라트'는 이슬람에서 천국과 지옥을 잇는 다리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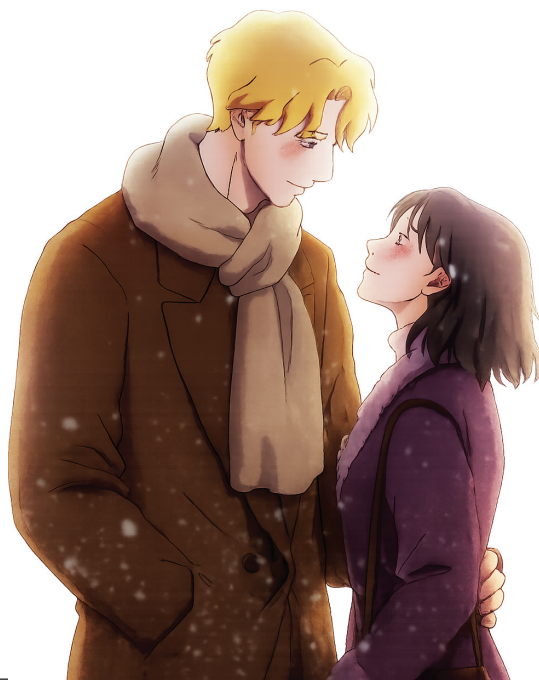
끝없는 사막에서 열리는 레ιβ 파티를 배경으로 아들 에스테반과 함께 실종된 딸을 찾는 루이스의 여정을 그린다. 세계 3차 대전 이후의 모로코를 무대로 삼았지만, 직접적인 설명은 최소화한 채 불안한 분위기를 서서히 쌓아 올린다. 파편적인 서사와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이어지며 관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논쟁작이다. 사운드트랙상을 수상한 작품답게 낯설면서도 인상적인 음악 역시 주목할 만하다.

15일 개봉한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광장'도 시네필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김보솔 감독의 작품으로 서울독립영화제와 안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등에서 수상하며 호평을 받아왔다. 북한 평양에 파견된 스웨덴 대사관 1등 서기관 '보리'와 평양 시민인 교통보안원 '복주'의 사랑을 그렸다.저체도의 색감 속에서 외로움과 통제의 현실, 그 안에서 피어나는 인간애를 담아낸다.

이와 함께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를 '신'이라 믿는 소녀 아멜리가 사계절을 지나며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린 애니메이션 '리틀 아멜리', 일본 영화계의 젊은 거장 미야케 쇼의 장편 데뷔작 '굿 포 낫싱'도 광주극장에서 관객을 만난다.

성인 1만원, 디트릭스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강부자·윤유선 주연
'친정엄마와 2박3일'



가장 가깝기에 더 미안하고 애뜻한

31일~2월1일 광주예술의전당

"다음 생에는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나줘요."
가장 가깝기에 미안하고, 그래서 더 애뜻한 관계. 엄마와 딸의 마음을 마주하는 무대가 찾아온다.

배우 강부자·윤유선 주연의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이 오는 31일 오후 2·6시, 2월 1일 오후 2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쉽게 꺼내지 못했던 모녀의 감정을 따뜻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고해적 극본, 아이스타미디어 제작.

연극은 잘나고 똑똑한 딸 '미영'과 그런 딸에게 늘 미안함을 안고 사는 엄마 '최 여사'의 이야기를 다룬다. 살갑지 못했던 딸이 딸기암 판정을 받고 갑작스럽게 시골 집을 찾으면

서, 모녀는 마지막 2박 3일을 함께 보내게 된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 위에 쌓이는 고백과 눈물이 관객의 마음을 두드린다.

작품은 2009년 초연 이후 '제10회 대한민국 국회대상 올해의 연극'에 선정되는 등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신파다. 딸밖에 모르는 엄마 '최 여사' 역에는 강부자, 새침한 딸 '미영' 역에는 윤유선이 출연한다.

공연 관계자는 "가족이기에 버틸 수 있는 시간의 힘을 그린 작품"이라며 "드라마를 라이브로 만나는 듯한 무대에서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특별한 가족 이야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석 7만7000원·R석 8만8000원, NOLE티켓·YES24티켓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ACC, 국제협력 전시 '봄의 선언' 연계 대담

17일 문화정보원 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 ACC)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 중인 국제협력 전시 '봄의 선언'은 ACC 10주년을 계기로 광주의 민주·평화 정신을 토대로 하고 있다.

'봄', '선언'이라는 키워드를 모티브로 국내 외 16명 작가 27점의 작품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

ACC가 '봄의 선언' 전시와 연계한 대담을 펼친다. 오는 17일 오후 2시 문화정보원 극장(북관전시1관)·

동시대 아시아 담론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예술가 호 루이 안, 비평가 서동진이 '봄의 선언'과 연계된 사유와 문제의식을 교환하고 참석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대담에서 참석자들은 '경제'가 시스템을 넘어 인간의 감정, 예술적 상상력까지 어떻게 스며들고 구조해 왔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정치철학과 사회이론을 토대로 사회를 비판적으로 분석해 온 서동진과 영상, 설치 작업을 매개로 동아시아의 경제 등을 탐색해 온 호 루이 안의 사유 지점을 살펴볼 수 있다.

김상욱 전당장은 "이번 대담은 오늘날 인류



의 당면 과제들을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자리"라며 "'봄의 선언' 전시의 가치를 이루는 자본세 담론이 참석자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는 무료이며 ACC 누리집 사전 신청과 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디지털 외사고(外史庫)' 건립...2028년 목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2028년까지 강원 평창군 오대산국립공원 박물관 단지 안에 '디지털 외사고' 건립을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외사고는 과거 중요한 역사 기록을 보관하던 사고(史庫) 가운데 궁궐에 있던 춘추관을 제외한 지방에 소재한 사고를 일컫는 명칭이다.

디지털 외사고는 박물관이 소장한 주요 기록유산을 연구·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총사업비는 194억원으로, 연면적 2천795㎡ 규모 건물에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등 기록유산을 소개하

는 디지털 실감 영상관, 전시·교육 공간, 디지털 자료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박물관은 지난해 수립한 기본 계획을 토대로 올해 설계 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 기록유산 보존·연구뿐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디지털 외사고 건

립 부지를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살피고, 오대산사고와 월정사 등 인근 주요 문화유산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오대산 사고에 보관돼 있던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소개하는 박물관이다.

오대산 사고본 자료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되는 아픔을 겪었다가 오랜 노력을 거쳐 110여 년 만에 돌아온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가치가 크다. 지난해 5월 박물관을 전면 개관한 이후 약 8개월간 다녀간 누적 관람객은 8만6천여 명이다.

/연합뉴스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